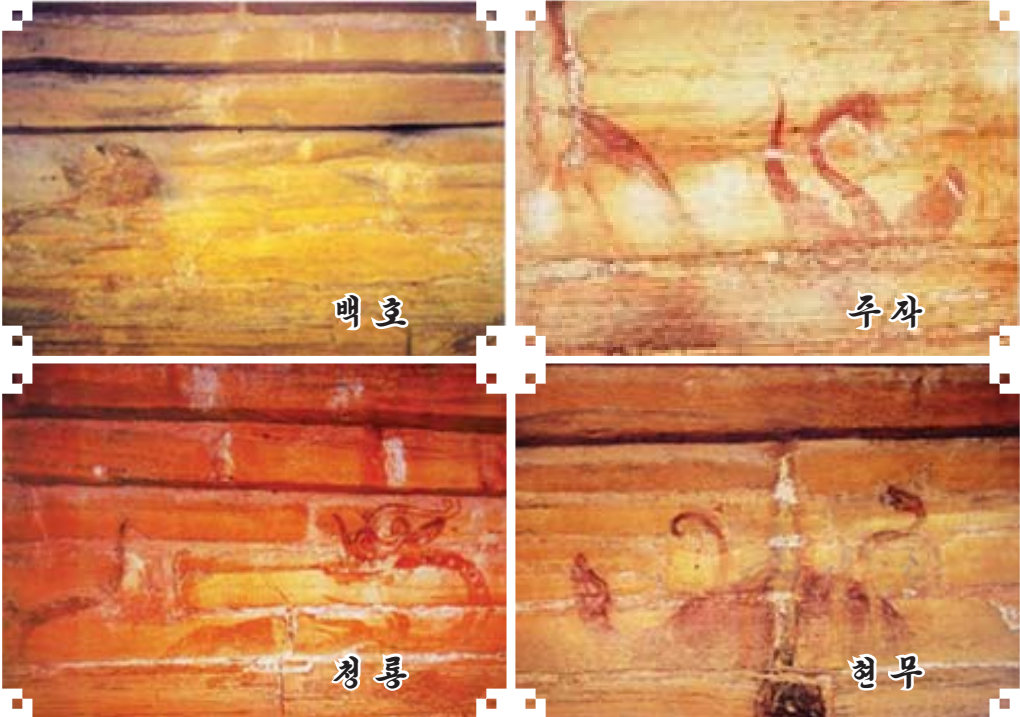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호남리사신무덤

우리는 삼석구역 호남리에 또 다른 역사유적을 찾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인 호남리사신무덤이었다.



여섯 무덤 규모도 크다고 동행한 립금석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업팀이 이야기 하였다. 무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이 무덤이 5세기~6세기에 만들어진 사신도주제의 외칸벽화무덤으로서 무덤칸은 안칸과 안칸으로 이루어졌고 그 방향은 남향이라고 해설해 주었다.

민족요리 도시소박이

오이 1.3kg일 때 무우 330g, 파 35g, 마늘 34g, 생강 13g, 사탕가루 10g, 소금 16g, 실고추 3g을 준비한다.

오이는 소금으로 문질러 씻은 다음 4~5cm 길이로 토막낸다. 이것을 한쪽끝이 붙어있게 열십자로 쪼개고 소금을 뿌린다.



전연기념물 오차바위

오차바위는 통연군 읍에서 20여km 떨어진 동포도의 남서부연안에 있다. 주변에는 기암절벽을 이루고 묘하게 생긴 바위들이 서로 키돋움하며 바다의 경치를 한껏 돋구어주고 있다.



도마도의 놀라운 치료효과

도마도는 훈한 냄새지만 치료효과가 뚜렷하다. 도마도를 리용하면 다음과 같은 병 및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 -피부병

사화 마지막 발명품 (6)

잠시후 자리를 차고 일어난 그는 다시금 일에 파묻혔다. 마음의 고통을 잊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던 것이다. 람주와 노력의 나날은 홀로 지내며 지냈다.

이 사진도가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소박한것은 고구려사신도들중에서 앞선 시기의것이기에 흥미롭다. 그리고 설명하였다.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민족고전 《근역서화정》

《근역서화정》은 우리 민족이 배출한 최대의 역사서예가, 화가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고전으로서 1928년에 오세창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속담과 뜻

◆ 곡식이삭은 여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학식이 높고 사람됨됨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아는체하지 않고 겸손함을 보게 되려는 말.



2021년 10대 최우수교원 해주시 구제유치원 교양원 강금순. 해주시 구제유치원 교양원 강금순은 조선로동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뛰어나고 헌신적으로 교육자로서 사명을 다해 오고 있다.

정몽주, 정도전 등 169명 소개하였다.

그리고 조선봉건왕조시기 부분에서는 안견, 김시습, 신사임당, 리이, 유정, 리항복, 한호, 허란설현, 김홍도, 김정희와 같은 서예가들을 포함하여 871명에 이르는 인물들의 창작활동을 싣고 기타 54명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보충적으로 기록하였다.

알록반죽자기제조술

고려시기(918-1392년)에 나온 알록반죽자기제조술은 자연의 색조화를 그대로 표현하는 독특한 자기공예법으로서 현재까지 그 전통을 그대로 살리면서 계속되고 있다.

가을 물결, 바람, 구름과 같은 알록반죽은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입진조국전쟁시기 의병장이었던 김덕령이 22살때 있던 일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알지 못할 병으로 앓아눕게 되었다.

자화

《저의 칭이 너무 무리할 줄 아옵니다. 허나 이 세상같이 300리를 갔다올 수 있진 우리 어머니는 저 세상길로 한번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나이까!》

다.》라고 말하였으며 장영실에 상호군의 벼슬을 내리었다. 상호군은 정4품 무관벼슬로서 실적이 아니고 명예직이었으나 천한 노비출신으로서 품도 꾸어볼수 없는 그런 판직이었다.



하얏다. 사람들이 고향을 에러고 그리워하고 사랑함은 다름아닌 그곳에 정든 산천이 있고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이 간직되어있기 때문이다.